



4월 16일
금요일

보도자료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과	축산정책과	과장	박도환	팀장	박진영	☎	286-6530
----	-------	----	-----	----	-----	---	----------

전남도, '동물복지축산 전국 제1호 한우농장' 탄생!

- 만희농장 김소영씨, 행복한 농장을 만드는게 꿈! 청년 후계 축산농가의 모델! -

- 전라남도는 해남군 북평면에 있는 만희농장(대표자 양만숙·김소영)이 한우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정부로부터 '동물복지축산 한우 농장(동물복지-15-14-4-1, '21.4.16.)'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는 축산농장을 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1.4월기준 총 300개소의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 ※ 동물복지축산농장 현황('21. 4.) : 300호(한우 1, 돼지 17, 젓소 17, 닭 265)
 - 전남 33호(한우 1, 젓소 2, 산란계 21, 육계 9)
- 한편, 한우농장은 가축운동장, 사육밀도, 풀사료 급여 등 엄격한 인증 기준 때문에 그동안 인증받은 농가가 없었으나 제도 시행 10년만에 드디어 전라남도에서 전국 1호 동물복지축산 한우농장이 탄생하였다.
- 해남군 북평면에 소재한 만희농장은 아버지와 어머니, 딸이 함께 운영하는 가족 경영 농장으로서 한우 147두를 사육중이며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 서울 소재 백화점에 납품하여 연매출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유기 축산 우수농장이다
 - 2008년도에 어머니 양만숙씨가 한우 2마리부터 사육하기 시작하였고 아버지 김성희씨도 2012년도에 40년 공직생활을 은퇴하고 본격적으로 한우 사육에 뛰어들게 되었다.
 - 주변에선 축사에 최대한 소를 많이 입식하여 돈을 많이 벌라고 권했지만 한우가 건강해야 그 고기도 건강하다는 생각에 넓은 사육공간과 가축 운동장을 제공하였고 특히, 햇빛을 충분히 받으며 뛰놀수 있도록 축사마다 각각 운동장을 구비하여 총 3개의 운동장을 설치하였다.

- 또한 일반 사료 대신 고품질 유기인증 조사료를 직접 경작하여 먹이기 위해 2017년에 유기축산물을 인증받았고, 2018년에는 HACCP 인증과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연이어 지정받았다.

○ 자녀인 김소영 대표(여, 42세)는 2014년 고향으로 귀농하여 순천대 마이스터 친환경한우 과정을 수료하는 등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으며 작년에는 전라남도에서 수여하는 친환경농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김 대표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소가 행복한 농장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며, “전국 1호라는 명예에 걸맞게 동물복지축산 한우농장 모델로 잘 운영하여 동물복지에 관심이 있는 다른 축산농가에도 도움을 주고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사람과 자연, 동물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들고 싶었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작년부터 동물복지축산 농장 인증을 준비하기 시작, 마침내 올해 귀농 7년만에 ‘전국 1호 한우농장’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 후계 청년 축산농가의 귀감이 되고 있다.

□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 생태에 적합한 여건 조성 및 건강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인증하는 동물복지축산 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많은 축산 농가의 관심과 동물복지 인증 참여를 당부하였다.

○ 한편, 전남도는 동물복지축산 농장 확대를 위한 전단계로 친환경축산물 인증 1,647호(전국 1위),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288개소 지정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산 1번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진있음)

